조선로동당 만세
김일성원수 만세
계속혁신
계속전진
5·1절만세
화살
안 창수 그림
1962년 5월호 (154)

석탄고지전투 참관기

작전 참모부

유 진용 글

최 영근 그림

《나는 조선 로동 계급의 영예를 지니고…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할 것을 맹세한다…》

8 갱, 9 갱, 10 갱에서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탄부들이 일제히 선서를 한다. 저 멀리 울려 퍼지는 이 전투 서곡을 심장

깊이 아로새기며 탄부들은 새 전투, 새 승리를 위해 신들메를 조이고 무장을 갖춘다.

그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유연탄을 독점하고 있는 안주 탄광—사람들은 긍지 드높이 이 탄광을 서부 지구의 《외아들》이라고 부른다. 중중첩첩 탄맥을 따라 무려 1억 3천만 톤이나 매장되여 있으니 이 《외아들》의 전망은 또한 얼마나 휘황 찬란한가!

용진가를 부르며 전투 대렬들이 보무 당당하게 수천 척 땅 속으로 내려 간다. 이들의 발'걸음 소리에 놀라서인가 수억 수만년 잠자고 있던 탄층들이 몸부림을 치며 쩡쩡 갈라진다. 얼기설기 뻗어 나간 편도들로 흩어지며 용사들은 저마다 승리자가 되겠다고 더욱 기세를 올린다…

× × ×

《차렷! 중대장 동무, 제 2 소대는 전투 명령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전투 규률 강화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치고 있는 9 갱 제 13 호 중대 최 병수 중대장이 전투 명령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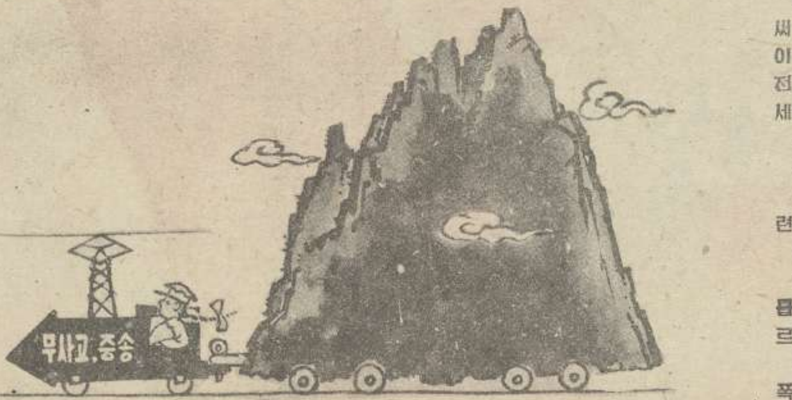
《방금 전투를 결속 짓고 있는 제 1 소대에서는 전투 초소 간의 긴밀한 협동 동작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적 130 개(석탄 130 톤)를 섬멸했소. 판정 검열에 의하면 동무들 앞에는 더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소. 오늘의 공격 목표는 150 톤! 이를 위하여 제 1 분대장은 장벽 좌측 제 1, 제 2, 제 3 초소, 제 2 분대장은 우측 제 4, 제 5, 제 6 초소에 각각 공격수(채탄공)들을 배치할 것. 특히 제 5 초소에서는 적정을 세밀히 살펴 발파에서 백발 백중의 위훈을 떨칠 것. 모두 자기 위치 앞으로!》

지령에 따라 제 3, 제 4 분대 성원들도 자기 진지를 차지한다.

《호르륵—》

안전원의 신호가 떨어지자 전투원들은 장벽을 향하여 일제히 불버락을 퍼붓는다.

방금 교대한 제 1 소대가 오늘의 성과



를 자랑하며 기세 드높이 중대 지휘부로 다가 온다.

《동무들의 성과를 축하합니다. 특히 200%로 자기 계획을 돌파한 제 2 공격조 동무들에게 대렬 감사를 드립니다.》

《혁명을 위하여 복무함!》

중대장의 찬사에 소대원들은 떠나 갈 듯 환성을 올린다. 갱구 쪽으로 걸어 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혁명적 기백과 창조적 희열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다.

강철 같은 규률이 확립되어 상부의 명령이 일사천리로 관통되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뭉쳐지니 흥정식 사업 태도나 피며 본위주의가 자취를 감추고 자력 갱생의 정신이 용솟음쳐 없던 부속품이 생겨나고 멎었던 기계들도 제법 활개를 치며 돌아 간다.

작년에 년간 계획을 선참으로 초과 수행한 9 갱은 금년에도 100만 톤 고지 우에 승리의 첫 기'발 휘날리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다.

안주 탄광의 또 하나의 자랑 8 갱! 한 해 동안에 40만 톤의 《검은 금》이 쏟아져 나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3,000 메터에 달하는 콤베야들이 물뱀마냥 구불구불 갱 속을 헤염치고 있으며 전차들이 또한 꼬리를 물고 씽씽 달린다. 갱 중턱에 잠시 머무르면 무변 광대한 문덕'벌에서 울려 퍼지는 풍년가를 들을 수 있고 깊이깊이 막장으로 내려가면 바로 그 우에서는 이 시각에도 어로공들이 만선기를 휘날리며 개선가를 부르고 있다. 이를테면 륙지와 바다를 지붕 삼고 있는 것이다.

8 갱에서 증산의 봉화를 올린지는 이미 오래다. 고속도 굴진 운동에서 월 500 메터의 기록을 창조한 안 익 굴진 중대가 오늘도 굴진 선행은 법칙이라는 당의 가르침을 받들고 앞으로 앞으로 돌진한다. 화살 같은 물'살이 버럭 중심부를 오려 내며 뚫고 들어 간다. 수력 채

탄의 《왕》 안 익 중대장이 백열전을 지휘한다. 그에게서 난공 불락의 요새를 찾지 말라. 마침내 물 줄기는 종횡무진으로 공격로를 개척한다···

《한 개 채탄장에서 2만 톤 캐기 운동을 전개하자!》

한 달 동안에 16,000 톤을 채굴함으로써 세인을 놀래운 장 천학 대대가 바로 이 구호의 선두에 서서 나가고 있다. 탄전 밑'바닥을 들어 내고야 말겠다는 기세로—

《천공 완료!》

《장약 완료!》

채탄장은 분초의 공간도 허용치 않고 련속 공격, 련속 돌격이다.

《호르륵—호르륵—》

호각 소리에 모두 질서 정연하게 대피를 끝낸다. 뒤미처 《꽝, 꽝, 꽝꽝꽝, 와르륵—》—줄발파 소리 갱내를 진동한다.

《70 톤이다!》 《아니, 80 톤이다!》

폭음과 함께 치렁치렁 울리는 환성이 갱 밖으로 줄달음친다.

잠시 전투원들은 자기들의 전과를 확인한다. 굽이굽이 지켜 선 운전공 처녀들이 운반은 념려 말라고 늘씬늘씬 콤베야를 타고 달려 오는 석탄들에게 길잡이를 해 준다.

앞서 가는 굴진병

새로운 전투 명령이 내린다.

《이설 작업을 전격적으로 끝낼 것》

이설 작업의 《보배》로 소문난 리 몽건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준다.

《빨리 앞서!》

《어서 뒤따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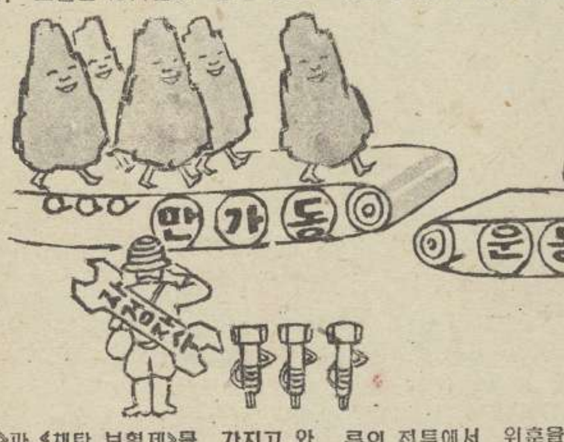
콤베야를 철페하는 성원, 조립하는 성원 서로서로 재촉하며 들거니 놓거니 하는데 그들의 손발은 마치 치차가 맞물리듯 척척 맞아 떨어진다.

…때마침 이동 판매원이 채탄장을 찾아 왔다. 남자들은 담배를 청하고 녀자들은 사탕을 찾는다.

《뭐든지 요구하세요》하며 판매원이 상품을 주른히 내 놓는다.

《이것은 한 대만 피워도 당장 혁신을 일으키는 《혁신》이구요. 이것은 탄부들의 생활엔 항상 광명이 비끼는 《광명》이지요. 호호호…》

즐거운 한때가 시작된다. 전투 지휘에 나선 탄광 당 위원장과 기사장도 한 자리에 앉는다. 이윽고 의료 일'군들이 이에 합류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손수 만든



《굴진탕》과 《채탄 보혈제》를 가지고 와서 권한다. 보기만 해도 새 힘이 솟고 팔뚝이 불룩거린다.

《자, 또 한바탕 해 볼가…》

전투원들은 다시 제각기 오가드릴, 삽, 곡괭이들을 잡는다. 산점은 우리에게 맡기라는듯 녀성들이 앞장 서 나가며 펑펑 퍼낸다.

…팡팡 퍼 내라, 듬뿍듬뿍 실어라,

어서어서 달려라, 나의 운탄차야—

채탄도 눈부시지만 운탄 대대 성원들의 전투는 더욱 눈부시다. 시간마다 교대마다 석탄 산은 높아만 진다.

깊은 잠에서 깨여나 새 세상을 맞은 석탄들이 서로 통성을 하며 희열에 넘쳐 춤을 춘다.

…멀리 가까이에서 기적 소리 울린다. 5,000 카로리의 유연탄에 입맛을 돋구고 무적의 기운을 얻은 기관차들은 《검은 금》을 실은 화차들을 달고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범'불 같이 달려 간다. 공업의 《식량》을 기다리는 자매 고지들을 향하여—

× × ×

전등'불이 휘황한 주택 거리에서는 가야금 소리 쟁쟁히 들려온다. 이것은 하루의 전투에서 위훈을 떨친 자기의 남편, 아버지를 반기는 환영곡이며 또한 래일의 보다 큰 성과를 약속해 주는 전주곡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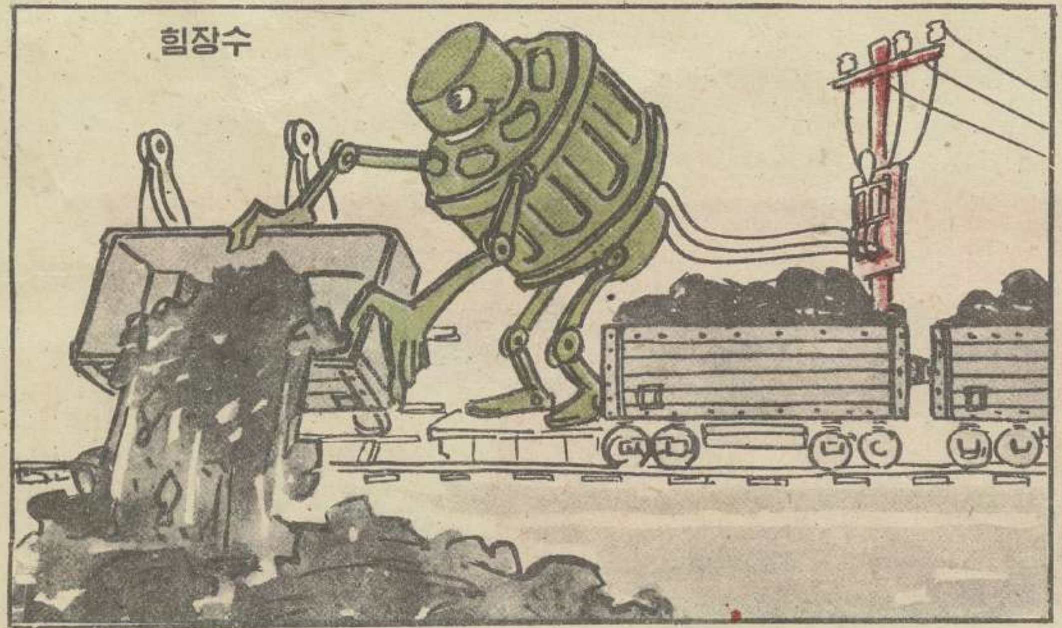
가야금 소리는 점점 더 세차게 1,500만 톤 고지에로 메아리치며 흘러 간다.

상 학

금성 철벽! 영구 진지

—공병 소대장 동지! 저희들은 물러 가겠습니다

힘장수



신의주역 일'군들은 새로운 기계(하차 전복기)를 도입함으로써 하차 작업에서 년간 666,000톤의 화물을 더 수송 할 수 있는 예비를 찾았으며 로력도 1,533 명이나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아름다운 반응

— 감사 편지만 600 여회라…

안 창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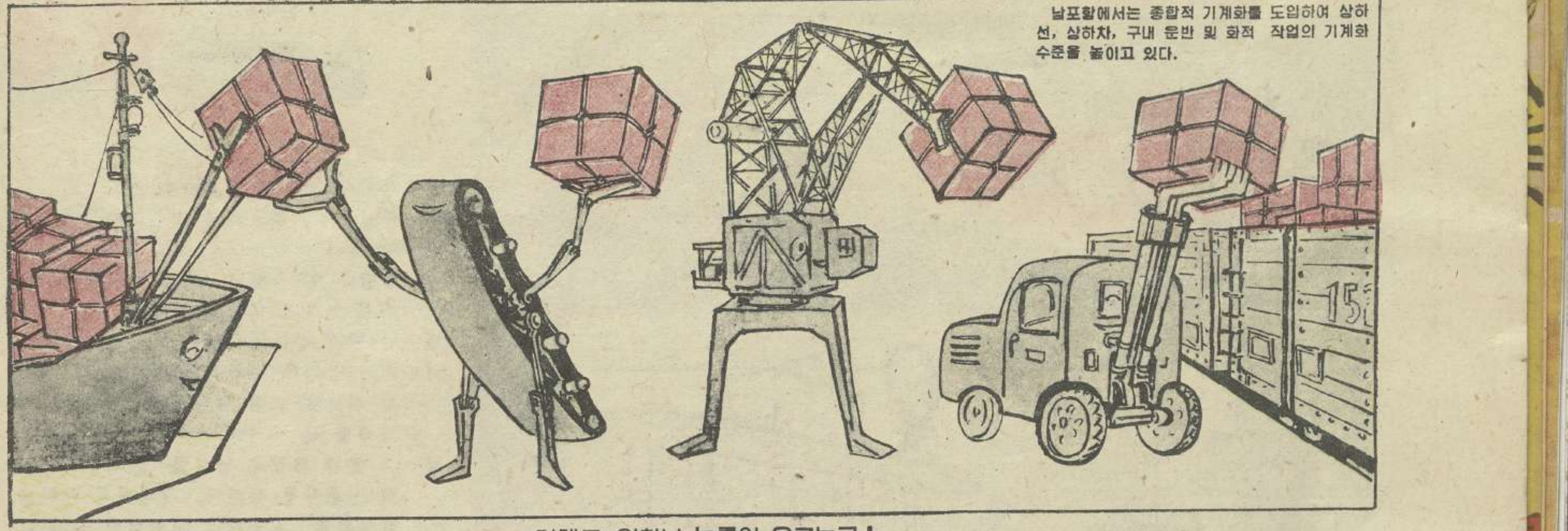
믿음직한 《예비군》 올라가는 가동률

송 시엽 그림

신의주 자동차 사업소에서는 3 개월분의 예비 부속품을 장만하고 자검 자수 애차 운동을 전개하여 85% 이상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있다.

—자네들의 덕분으로 85% 이상의 가동률을 보장하게 되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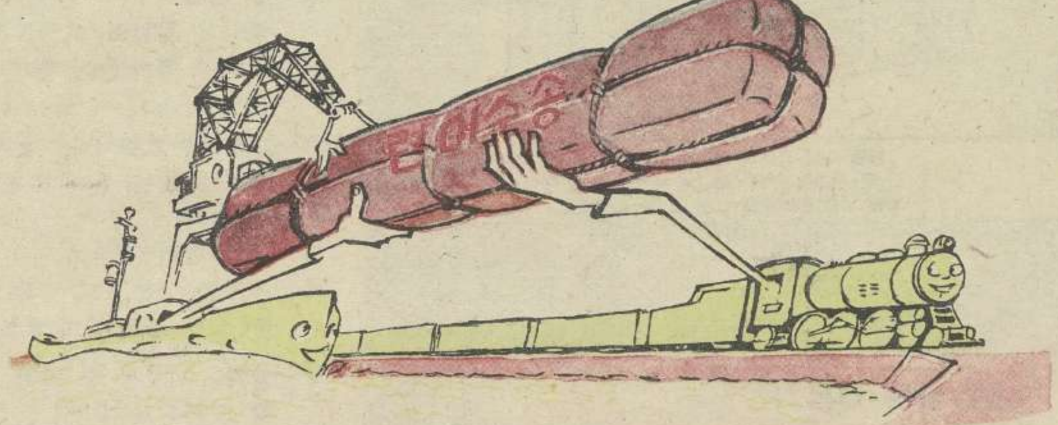
일은 헐하고 능률은 높다



남포항에서는 종합적 기계화를 도입하여 상하선, 상하차, 구내 운반 및 화적 작업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기계로 일하니 능률이 오르는군!

민속한 협동 작전



남포항에서는 배의 운항과 환차 조직을 잘 배합하여 련대 수송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화물 수송의 시간성을 단축하고 있다.

안 창수 그림

조 원팔

갑 가만있자. 몹시 낯이 익은데.

을 아니 이게 누구야 1 호 선반기가 아니야! 이것 정말 오래간만인데.

갑 정말 반갑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작 기계 공장에서 헤여진 후 만 3년만에 만나는 셈이 아닌가!

을 그렇구 말구.

갑 정말 자네는 3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있구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청도 여전히 쨍쨍한데다가 자네 몸에는 흠 하나 안 가고 신품 그대로 있는가? 응, 아마 그 동안 자네를 쓰지 않고 창고 안에 넣어 두었다가 요새 비로소 자네를 돌리기 시작한 모양이군?

을 천만에 3년 동안 대보수 날을 빼 놓고 계속 돌아 갔지…

갑 그런데 이렇게 자네 몸이 그 옛날 그대로 있단 말인가

을 그렇구 말구, 이게 다 우리 주인님의 덕분이라네

갑 뭐? 주인의 덕분?

을 하여간 매일 아침 누구 보담도 일찍 출근해서 진찰을 해 주거든

갑 진찰을 한다… 그럼 자네는 늘 환자로 있었구만 그래 어디가 늘 아팠나 응?

을 꼭 아파야만 진찰을 하나?

갑 그럼!

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보수, 즉 진찰을 해 준다 그 말이야

갑 옳아 예방 보수.

을 그렇지. 어디가 아프지나 않나 청진기인 마치로 온 몸을 뚝뚝 뚜들겨두 보구 맥두 짚어 보구,

갑 뭐? 맥두 짚어 봐!

을 기계가 제대로 돌아 가는가 한 번 돌려 본다 그 말이야

갑 옳아, 그럴듯한 이야기야

을 그리구 주사도 놔 준다네

갑 뭐? 주사를 놔 주어, 엑기 이 친구가

점점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강철로 만든 단단한 자네 몸에 그 가느다란 침이 들어 간단 말인가?

을 여보게 내가 말 하는 주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놔 주는 그런 주사가 아니라 기계가 잘 돌아 가도록 기름을 쳐 준다 그 말이지

갑 하하하 혈액 순환이 잘 되여 원기가 왕성해 지는 사람 모양…

을 그렇지, 그리구 우리 공무 직장에서는 구 급 처치약두 계속 만들고 있다네

갑 뭐? 구급 처치약, 정말 이 친구가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을 왜?

갑 아 원래 약이란 그 원료로 치드라도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에서 성분을 빼가지고 제약 공장에서 만들기 마련인데, 강철이 원료가 되여 가지고 그것도 제약 공장이 아닌 이 공무 직장에서 구급 처치약을 만들다니 통 리해가 안 되네.

그래 무슨 약을 만들고 있나

을 예비 부속품

갑 뭐? 예비 부속품, 아니 그게 어째서 구급 처치 약인가? 엉!

을 이렇게 둔하다구야 례를 들어 기중기를 돌리다가 볼트 하나가 못 쓰게 되였다면 어떻게 되겠나

갑 그거야 기중기가 멎고 말지

을 그러니 사람으로 치면 상처를 입은거나 마찬가지란 말일세. 그러니 벽체를 빨리 물어 올리자면 그 기중기에다가 인차 볼트를 갈아 끼워야 되질않나.

갑 그렇지.

을 그러니 결국 볼트, 즉 예비 부속품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만드는 예비 부속품들은 여러 기계들한텐 구급 처치약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갑 하하하 이제야 알겠네 알겠어…

을 그리구 지금 우리 주인님은 그 전 모양 백 메터 선수가 아니라네.

갑 백 메터 선수가 아니라니.

을 아 전같으면야 소재 하나를 깎은 다음엔 또 다음 소재를 가지러 그냥 산지사방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사전에 작업에 제시된 소재를 미리 준비시켜 놓니까

갑 하하하 난 또 뭔가 했구만

을 이렇게 예비 부속품을 선행시켜 놓으니 그날 계획을 그날로 척척 해 낼 수 있었지

갑 옳아 그날 계획은 그날로 꼭꼭 완수한다 그말이로군

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200%, 300% 초과 완수한다 그말이야. 그리구 공작기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분대원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시켜 놓고 공격전에 들어 간다네.

갑 분대원이라니!

을 아 바이트, 트릴, 자크등 공구말이야

갑 응, 난 또

을 게다가 요샌 한 번 더 보기 운동이 벌려지고 있는데

갑 옳아 한 번 더 보기 운동이란 이런게 아닌가?

을 어떤거?

갑 전기 절약을 위해 자기 전에 전등이 잘 꺼졌나 한 번 더 보는가 하면 수도 물을 다 받고 돌아 갈 때수도 꼭지가 잘 잠겼나 한 번 더 보구, 또 외출할 때는 자기 몸 치장이 단정한가 체경을 한 번 더 보는가 하면 출근 전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시계를 한 번 더 보구 가는 운동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에서 한 번 더 보기 운동이란 정말 중요하다네 례를 들어 소재를 깎기 전에 오작품을 방지하기 위해 도면을 한 번 더 보고 깎는가 하면, 작업에 착수하기 전 선반기의 부속들이 제대로 다 있는가 즉 볼트 낫트 등이 잘 죄여 있는가 한 번 더 살펴 보고 혹 잘 죄여 있지 않으면 다시 스파나와 마치로 죄여 놓고 기계를 돌리는 것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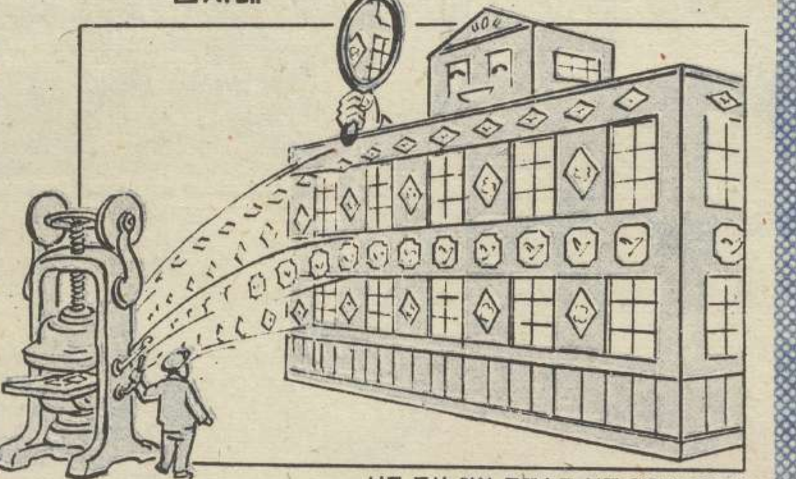
갑 알았네 알았어,

을 우리들을 무병 장수케 하기 위해 구급 처치약(예비 부속품)을 언제나 장만해 놓고 정성껏 진찰(예방 보수)해 주고 있는 우리 주인님— 천리마 기수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있는 힘을 다 내여 일하고 있다네.

갑 암, 그래야지

을 자, 그럼 힘껏 같이 일해 보자구

몸치레



안 창수 그림

남포 도시 건설 트레스트 부재 직장에서는 보다 더 화려한 주택 건설을 위하여 각종 문양과 색을 드린 다이루를 다량 생산하고 있다.

나래 엮는«재봉기»

문덕군 농기계 공장 조립공 리 탐하 동무는 하루에 1,600 메터나 생산할 수 있는 나래 기계를 창안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최 영근 그림

독자 투고 작품

붇는 배

청진 조선소 우 석 영

남—어이구 굉장히 부르기두 불러

녀—아니 누가 부르기에 굉장하다구 그러슈

남—내 배가

녀—령감두 원… 아니 그래 날 빼놓구 어디 가서 그렇게 굉장히 잡쉈수

남—닥 배가 붇는데 왜 배가 안 부르겠소

녀—배가 붇는다구 배가 불러요?… 그럼 령감 실없은 소린 됐다하구 어서 병원엘 가야할 게 아니요

남—그 숫한 배들을 병원엘 끌어다가 뭐하려구. 통통통 새끼배, 제꺽제꺽 어미배, 선들선들 얼음배, 번쩍번쩍 운반배…

녀—어이구 무슨 놈의 배가 그리 복잡하게 생겼수

남—잘 알면서두 그래(자기를 가리키며) 이 령감이 뭘하는 사람이지?

녀—뭘하긴 뭘하겠소 배를 만드는 조선공이지

남—그렇지! 그러니 이 솜씨로 어제도 무어 내고 오늘도 무어 내는 통에 통통통…

녀—알만해유

남—뭐?…뭔데 알만해

녀—뻔하잖수 령감이 만든 배가 말을 안듣구 그저 통통통 발버둥질만 치구…

남—앗따, 그렇게 두 번만 알았다간 이 령감 망하겠어 망해!

녀—호호호… 그저 령감이 대견해서 하는 소리웨다.

남—그런데 노친네

녀—왜 그러우

남—음, (기침을 하고나서)

세찬 파도에 덩구는 쪽배에
하많은 원한과 몸을 싣고
사공은 빌고 빌었다네
파도가 잠자기를,
두 보름 기다려도
돌아 올 줄 모르는 님을 두고
파도를 탓한들, 돛배를 탓한들
소용없고, 눈물만이 옷 고름을 적시였다네…

녀—아니 령감이 어쩌자구 신세 타령을 하며 야단이유

남—그게 바루 사공을 남편으로 섬기고 못된 세월을 한탄하던 내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이라오

녀—저런, 그런걸 모르구 난 령감이 신세 타령을 하는줄만 알았구려…

남—그 원을 로동당 시대가 풀어 주고 있지 않소…

노를 젓던 팔뚝이 힘을 잃고 바람에
내 맡기던 쪽배에 열구 기관을
설치하니 처녀 선장들도 타핸들만
척 틀어 잡으면 그저 밤이나 낮이나 통통통, 또 통통통…

녀—그런데 령감, 그 제꺽제꺽, 선들선들 번쩍번쩍하는 배들은 다 뭐유

남—오, 그거…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구 년 300일 이상 가동하면서 먼 바다 가까운 바다 깊은 바다 얕은 바다 가리지 말고 고기를 잡으라는 수상님의 교시 알지?

녀—알다 뿐이겠소 따라가 잡구 맞받아 나가면서 잡구…

남—허어, 노친네두 상당히 발전했는데

녀—앗따, 근로자 중학교 최우등생을 어떻게 보구 하는 소리요

남—그런데 말이유

녀—어서 얘길하시우

남—바다에다 제 1 선, 2 선, 3 선— 이렇게 떡 구간을 정해 놓고는…

녀—아니, 바다에다 금을 그어요?

남—이를테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우선 제 1 선에선 통통통 새끼 배들이, 제 2 선에선 작년에 내가 무어 보낸 자망, 저예망선들이 고기를 잡구 그리고 제 3 선에선… 3 선에선…

녀—갑자기 왜 이러시우

남—생각만 해두 가슴이 벅차서 그러우 에…제 3 선에선 막 심해어선, 포경선, 뜨랄선들이 고기를 펴 내는데…

녀—그러구 보니 령감이 금년에 만든 뜨랄선이 제일 먼 바다에 나가는군요

남—제일 먼 바다에서두 제일 큰 고기만 잡아내지!

녀—참 보통이 아니웨다.

남—이렇게 배마다 만선기를 달면 제꺽제꺽 어미배가 와서 제꺽제꺽 받아서 제꺽제꺽 랭동하구 제꺽제꺽 바다 우에서 통조림까지 만들어 낸단 말이요

녀—(짭짭 입맛을 다신다)

남—흥, 구미가 도는 모양이지 짭짭하구… 게다가 번쩍번쩍 운반선까지 나타나서 펄펄 뛰는 생선을 싣고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몰아 대는데… 그러면 생일상, 잔치상, 명일상은 물론 밥상이 푹직하게…

녀—그러니 뭐니뭐니 할 것 없이 자꾸자꾸 배만 불궈내면 잡은 고기는 더 많이 뿔어 나겠군요.

남—그 고기들을 보기만 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구

녀—생각만 해두 배가 부르웨다.

남—그래서 뜨랄선을 만들어 내는 이 령감을 적극 방조하란 말이요.

녀—념려 마시우 령감! 80만 톤 고지 점령에서 한 몫 단단히 보는 네 령감인데 어림 있겠소.

판이한 두 현상

북조선 | 남조선

행복한 가정, 로동의 기쁨

고역에 시달리는 노예의 처지

나라와 더불어 늘어가는 살림

굶기가 일수인데 뜯기우는 처지

보람찬 생활에 즐거운 나날

일'자리도, 실 곳도 없는 서글픈 처지

살림을 꾸리는 나라의 주인

손 목은 맬 수 있어도 투쟁의 불'길은 없앨수 없다

홍 종호 그림

론고장

오 홍택 글
허 능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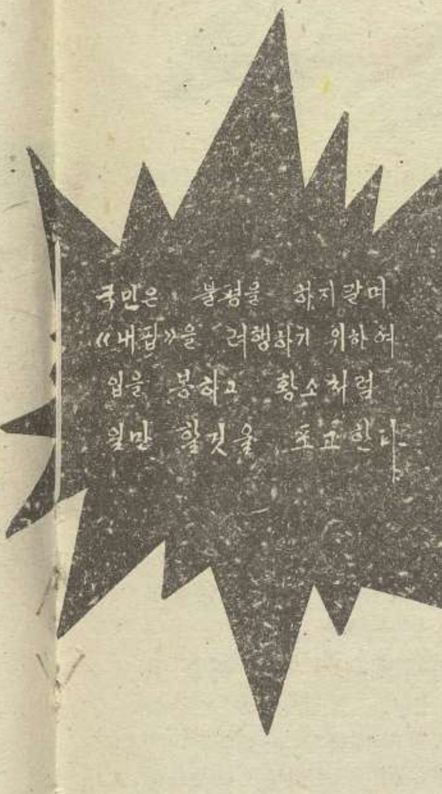
5월의 하늘에서 오락 가락하면 구름이 한 줄기로 모여들자 파르릉하고 천동이 쳤다. 삼각산 령마루에서 울리는 벽력 같은 소리가 서울 장안에 메아리 치더니 한강 물은 솟구쳐 설레이고 남산은 노기를 뿜어 몸부림 쳤다. 쟈즈곡에 맞춰 총'대를 휘두르던 양키들이 혼비 백산하여 쥐 구멍을 찾고 박 정희 깡패는 양키 소매 자락에 매달려 사시나무 떨 듯하고 있는데 거연히 솟은 삼각산은 인민의 원쑤들에게 서리'발 같이 준엄한 론고를 내리고 있다.

× ×

피고 박 정희는 곡디에 피도 마르지 않았던 때부터 《일본 천황》에《충성》을 맹세하여 《혈서》를 쓰고 《일본 륙군 사관 학교》에서 사무라이 훈련을 받았고 이후 왜군《중대장》으로 만주 벌판에서 무고한 조중 인민들을 학살하기에 날뛰였으니 조선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왜군의 패망과 함께 양키들이 남조선 땅에 기여 들자 양키 군복으로 단장을 고치고 양키 륙무로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하기에 날뛰였고 《최고 회의 의장》의 감투를 만들어 쓴 후부터 1년째 양키 조종하에 칼부림으로 동서 남북도 가리지 못하고 날뛰고 있은즉 그 국적이 조선이 아님이 그의 행적에서 명백한 것이다.

피고 박 정희가 《자유》와 《민주주의》란 말을 감히 떠드는 것은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는 흉악한 술책이다. 리 승만 때는 그래도 문패만이라도 달고 허잽이 노릇을 하면 《국회》라는 물건과 정당이나 단체라는 것은 고사하고 그와 비슷한 것까지도 모조리 쳐부시고 10여만 명의 인민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고 있으니 살인 강도 현행범이 분명하고 또 양키 식민지만으로도 부족하여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나라를 팔기에 날뛰고 있으니 2중 매국노가 분명한즉 피고도 마땅히 처단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어다.

피고 박 정희가 왜군《중대장》 복장에다 양키 군복을 덧'입고 그 우에《대통령 대행》이란 감투 쪼각까지 만들어 쓴 것은 제놈의 몸 값을 스스로 올려 보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몸 값이 올라 가기는 고사하고 일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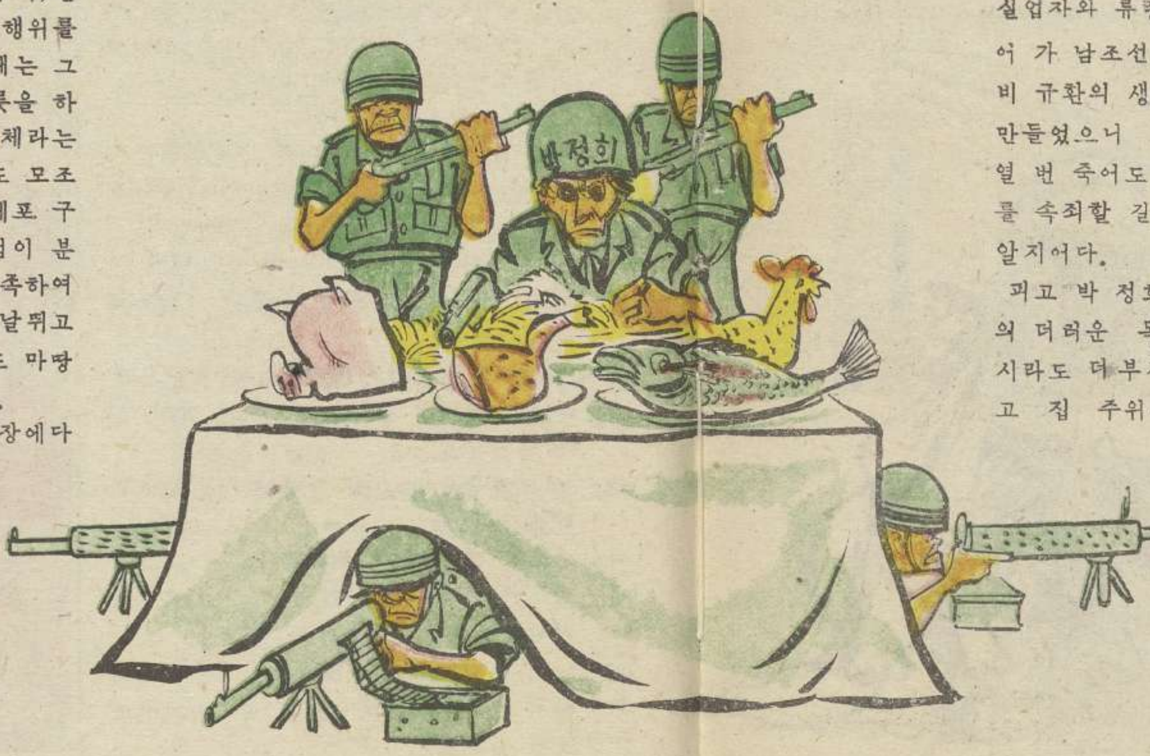
동물계에서도 그렇게 추악한 물건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 피고는 이 세상에서 존재를 끝마쳐야 할 때가 온 것을 각오하라.

또 피고는 쌀을 내라는 인민들의 요구에는 《내핍》을 강요하고 자유를 요구하는 웨침에는 총검을 들여 대고 잠자리를 달라는 요구에는 판자'집 철거를 감행하고 배움의 권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서는 그나마의 학교들까지 페쇄를 감행하고 있으니 피고가 모든 것을 꺼꾸로 보고 꺼꾸로만 행동하는 것이 틀림 없은즉 피고는 발을 손으로 알고 손을 발로 알며 아래로 먹고 우로 배설하는 것인가, 이런 추악한 물건짝은 일찌기 본보기가 없으니 피고는 지옥의 동물원에나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어다.

피고 박 정희는 칼부림을 시작한 후 천값, 장작 값을 비롯해서 돈 주고 사는 물건값은 모조리 올리기만 하고 화폐와 세금 고지서는 람발을 하고 있으니 그 죄악과 악랄성이 송도 말년의 불가살이를 릉가하며 경

제를 모조리 파괴 략탈하여 가는 곳 마다에 실업자와 류랑민만 늘어 가 남조선 땅을 아비 규환의 생지옥으로 만들었으니 피고는 열 번 죽어도 그 죄과를 속죄할 길 없음을 알지어다.

피고 박 정희는 제놈의 더러운 목숨을 한 시라도 더 부지해 보려고 집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나 다닐 때는 지뢰 탐지기를 앞세우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밥 먹을 때까지 한 개 중대의 호위병을 배치하는 것는 분명히 사람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피고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더는 살 수 없음을 각오할지어라.



피고는 길 가든 사람이 걸음을 잘못 걸어도 잡아 넣고 나 어린 소년이 무섭다는 말 한 마디 해도 잡아 넣고 또 낮에는 세 사람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집회 금지 포고로 사람들을 결박하고 밤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으로 두문 불출을 시키니 수백만의 무고한 인민들을 위하여 피고를 결박하고 두문 불출시키고 처단해야 할 것임을 각오하라.

피고 박 정희는 남조선 땅에 사람의 너무 많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남미주에 종신 노예로 팔아 넘기려고 획책하면서도 일본 자본가들을 남조선 땅에 끌어 들이려고 초청장을 보내며 아양을 떨고 있으니 남조선 땅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떠드는 것은 헛 수작이 틀림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피고의 상전인 미제와 일본 자본가에게는 《충성》의 표시로 될지 모르나 남조선 인민들로부터는 처단을 면치 못 하리라는 것을 각오할 지어다.

피고 박 정희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제한하고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언론 출판을 제한하고 교육을 제한하고 사람들이 밥먹고 말하는 것을 제한하다 못해 끝내 녀성들이 아이 낳는 것까지 제한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으니 피고의 생명을 오늘로 제한하는 것이 이 모든 제한을 풀리게 하는 것인즉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 ×

삼각산의 준엄한 론고가 이렇게 계속되며 울려 퍼지고 있는데 양키 소매 자락에 매 달린 박 정희는 찍 소리도 못 하고 떨기만 하는데 폭풍이 일어나고 파르릉하고 천동이 치는 바람에 양키나 박 정희는 남해 바다의 거치른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 ×

박 정희 깡패들을 가어코 이렇게 처단하며 양키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야 말 그 날을 위하여 남반부 인민들은 투쟁의 기치를 한층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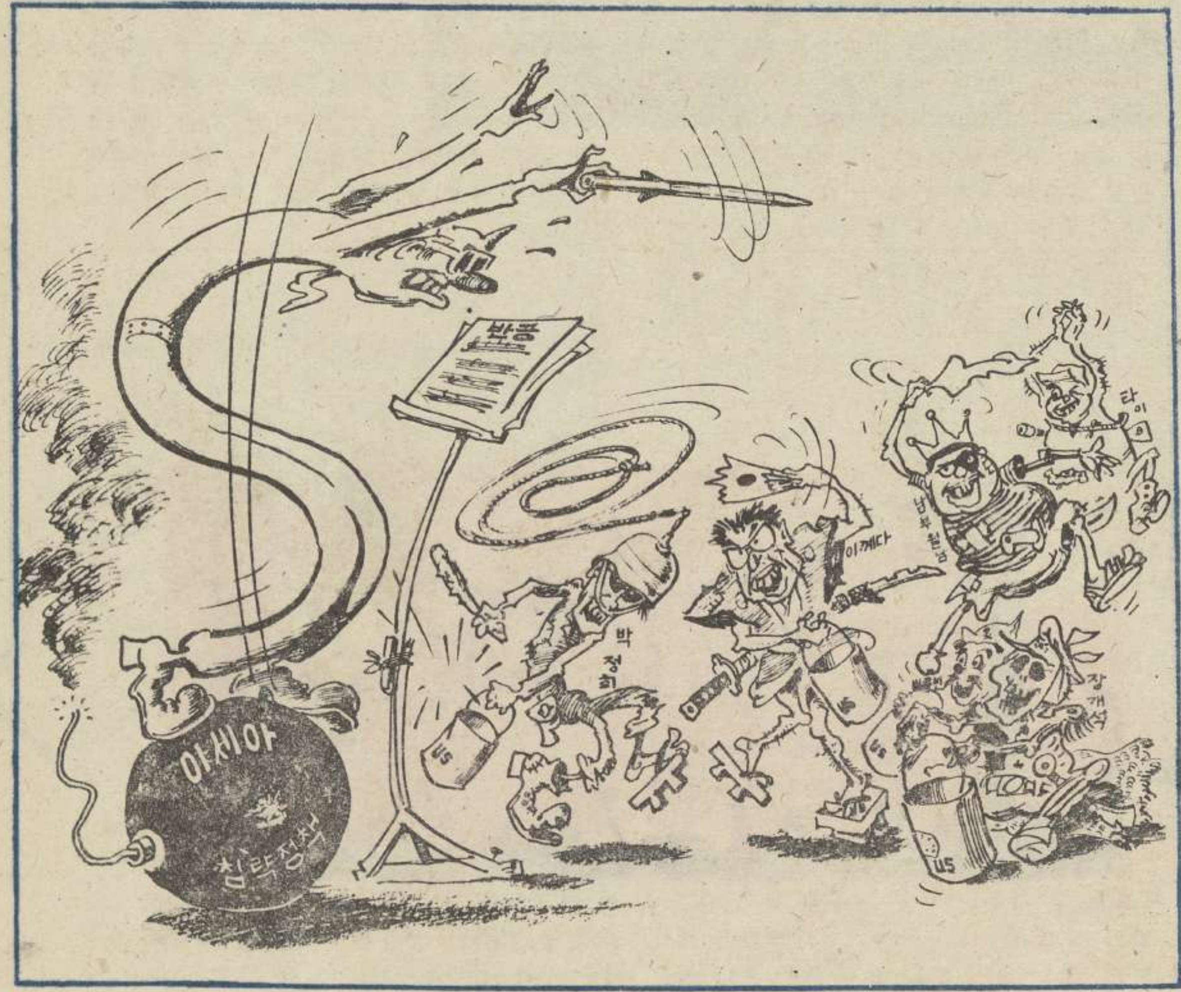
망국 예산

남조선의 글년도 《예산》에서 군사, 경찰비와 파쑈 기구 유지비는 《일반 회계》 세출액의 83%에 달하고 있다

안 창수 그림

반공 광대 놀음

미제 상전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인간 쓰레기들의 《반공》 소동은 미제의 조종하에 벌어지는 광대 놀음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저주만을 자아내고 있다.



미제 — 박자를 맞춰, 박자를!

백 인균 그림

만담

양키의 곡예수단

신 봉출

남조선에서 박 정희란 놈이 하는 짓을 보면 모두가 양키식 속임 수란 말입니다.

미국 도적놈들의 얘기야 뭐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드랍니다.

뉴—욕 부르도위에서 금붕어 장사를 하는 쟈크란 자본가가

《금붕어 사료 금붕어 사료》

하고 암만 선전 해두 사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놈의 금붕어를 사 가기만 하면 그 이튿날로 모두 죽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 이 쟈크라는 미국놈이 묘한 꾀를 하나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협잡을 해 먹었는구 하니 그 이튿날 다시 《백년 사는 금붕어 사시오》 하고 길'거리에 광고판을 내걸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 보았답니다.

《여보 정말 백년 사우?》《백년 삽네다. 만일 백년 못 살면 손해 배상 물어 드리겠삽네다.》

《그럼 계약서를 써 줄 수 있소?》

《아 써 드리구 말구요》

자 그래 계약서까지 써 준다는 바람에 이 사람이 금붕어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갔는데 아니나 다를가 그 이튿날 금붕어가 죽었지요. 그래 그 사람이 죽은 금붕어를 들구 쟈크란 놈 집을 찾아 가서 《야 이놈아 손해 배상 내라 이게 어디 백년 사는 금붕어냐?》 하니까 쟈크란 놈 대답이 《아닙네다 백년 삽네다.》

《아 죽었는데 백년이야?》

《꼭 백년 삽네다.》

《자 이런 죽일 놈이…야 이놈아, 오늘 죽었는데 백년을 살아?》

《허허 어저께까지 바루 백년째 되는 날입네다》그러드라거든. 어쨌던 양키놈들의 세상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구 하니 《거리의 택시》라는 영업을 하는 자본가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 놈이 자동차를 세워 놓고 암만 기다려 봐야 타는 사람이 없드란 말입니다.

그래 이 불한당 놈이 어떻게 또 사람을 속여 먹는구 하니 자동차 앞에 달린 유리창에다 《승차 무료》라고 쓴 광고판을 하나 붙여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지나가든 사람이 그걸 보구 자동차를 타구 자기 집 앞에까지 가서 《고맙소》하고 내리니까 운전수 말이 《돈 내시요》

《돈? 아니 돈이라니? 승차 무료 라고 하지 않았소?》

《허허 당신은 자동차 앞에 붙인 광고판만 보았지 뒤에 붙인 광고판은 못 보았구려.》

손님이 뒤에 붙인 광고판을 보니까 자 이 놈이 뭐라구 써 붙였는구 하니 《하차 유료》라고 써 붙였거든. 이게 바루 미국놈들의 속임 수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딸라 원조》라고 떠들면서 《조건부》 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 놈의 수'법이나 《승차 무료》라고 써 붙이고 《하차 유료》 라는 올가미를 씌우려는 놈이나 쌍둥이 같은 도적놈들아지 다를게 뭐냐 말입니다.

바루 요 수'법을 수입해다가 쓰구 있는게 박 정희라는 깜찍스러운 백정놈의 자식이거든—

요놈이 떠드는 《복지 사회》란 말이 바루 《승차 무료》라는 수작하고 똑같지 않느냐 말요. 외자라는 승냥이 같은 날강도 놈들의 자본을 가지고 《복지 사회》가 돼? 《하차 유료》식 《조건부》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고 달려 들어서 지지구 볶아서 뼈다구까지 아작아작 깨물어 먹는 바람에 《복지 사회》가 아니라 가슴이 터져 죽는 《복통 사회》밖에 더 될게 뭐냐말요. 박 정희 백정놈의 속임수에 누가 속겠소.

원래 미국이나 남조선의 사회 제도 자체가 도적놈들이 하는 도적놈의 정치요 약육강식을 하는 승냥이 판이라 단순한 《범죄 소굴》이 아니라 도적놈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도적놈 제조 공장》이란 말입니다. 우선 미국만 하더라도 이른바 련방 수사국장이라는 후버지 전버지 하는 아이가 실토한 얘길 들어 보면

《미국에 있는 7천 7백 여 개나 되는 경찰국들에서 중앙에 있는 련방 수사국으로 범죄 건수에 대한 보고가 들어 왔는데 단 1년 동안에 자그만치 186만 1천 3백 건이나 되는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은 1 분 동안에 평균 두 번씩 일어나구 강도 사건은 6 분 만에 한 번씩 일어나구 절도 사건은 39 초 동안에 한 번씩 일어 났으니 눈 한 번 깜짝 깜짝 하는 동안에 때리구 죽이구 뺏구 훔쳤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놈의 세상이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이요. 그야말로 백귀가 란무하는 란장판이지, 이게 바루 미국 대통령 케네디란 놈이 떠드는 《자유 세계》구 이게 바루 군사 깡패 대장 박 정희 자식이 떠드는 《복지 사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권》을 잡고 들어 앉아서

《세계를 위합네》, 《국가를 위합네》, 《백성을 위합네》

하고 바루 무슨 승현 군자나 우국 지사가 된듯이 위선적인 가면을 뒤집어 쓰구 있거든.

그러기에 예로부터 도적놈이 자기 명함에다 《나는 도적놈이요》 하고 써 가지고 댕기는 놈이 어디 있소?

만일 케네디나 박 정희 같은 날도적놈들의 명함을 바른 대로 백인다면 케네디는—

《국제 반동의 원흉》이라는 딱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천 수만가지 죄명을 깨알처럼 써내려 가다가 맨 마지막 대목에 가서 《미국 범죄 주식 회사 지배인》이라고 써야겠고, 박 정희란 놈 명함에다가는—

《망국 역적 최고 회의 의장》이라는 딱지를 비롯해서 해방 전후의 가지가지 죄명은 물론이요 특히 굵은 글'자로《살인 강도—인간 백정》이라고 써 내려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미국 범죄 주식회사 남조선 지점장》이라고 쓰는데, 만일 송 요찬이가 자기 명함도 한장 써 달라고 하면 고놈은 《미국 범죄 주식 회사 남조선 지점 전무 취체역 겸 무지막지 돌대가리》라고 써 주면 어상반할 것 같단 말입니다.

깡패 거지

망할 세상 (14)

박 승히 그림

박살 난 잔치

최 장환

어느 날 오후 사세청장이 세무리들을 모아 놓고 괴'대를 올리며 일'장 훈시를 시작했다.

청장~ 그래 이달이 다 갔는데도 세금은 단 1 할도 못 받았으니 어떡하겠냐 말이야? 그렇게 하구서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 엉?… 말을 좀 해 봐, 오군!

세무리~ 글쎄 저희들 립장도 딱하게 됐습니다.

청장~ 뭐가?

세무리~ 청장님 명령 대로 저렇게 안내는 놈들을 모두 붙들어다가 가진 협박과 공갈을 다 했는데도 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청장~ 말을 안 듣다니?

세무리~ 당장 끼니를 굶는 판에 무슨 돈으로 그 놈의 오가잡탕 세금을 물겠는가고…

청장~ 닥쳐! 그건 그 놈들의 사정이고… 그래 우리 군사 정권의 밑창이 들어나게 된 판에 어느 놈의 사정 보게 됐어? 세금을 못 받아 들이는 날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군사 재판에 넘어 갈 줄 알아!

세무리~ 글쎄올시다… 그러니 글쎄 요새는 야밤 도주하는 놈에 가개'방 문을 닫는 놈이 부쩍 늘어 가니 더욱 곤난한뎁쇼.

청장~ 빌어 먹을… 대가린 두었다가 뭐에 쓰자는 게야? 총 칼로 위협해서 안들으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세무리~ 네??

청장~ 남의 주머니를 굽어 내자는 놈들이 그만한 궁량도 없어? 이봐! 세금 납부 기일을 지키는 사람은 세액을 감해 준다고 슬슬 꾀이란 말야!

세무리~ 감해 주다뇨?

청장~ 하루만 먼저 바치면, 1 부씩 감해 준다… 그러니 열흘만 앞당겨 내면 1 할을 감한다…

세무리~ 그러다가 정말 감해 내라고 하면 그 차액은 누가 충당하겠습니까?

청장~ 이런 밥통이라구야… 그러니까 감해줄·액만큼 미리 뿔궈서 보내란 말야! 10만 환이면 10만 1천 환이라… 어때? 호호…

× × ×

이리하여 사세청장은 세금 미납자로 끌려 온 군중들 앞에 나서서 《선심》을 쓰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사세청장의 예견대로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며 세금을 바칠 의향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 × ×

세무리~(귀'속 말로) 청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저것 보십시요 좋아들 하는 폼이 바치려는가봅니다.

청장~ 어때? 내 솜씨가…호호… 이 번에야 올 데 갈 데 없이 걸렸지… 호호

상인~ 저 나으리, 세금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청장~ 여러분, 이 분의 애국적 미거는 참으로 본 받을만한 일이요.

군중들~나도 바치겠소, 나도 바치겠소 (몰려 나온다.)

청장~ 암, 그래야지 호호… 자 어서 나오시오.

상인~ 하루만 먼저 바치면 1 부씩 감해 준다는 말은 사실이겠죠?

청장~ 암 감해 주구 말구, 열흘만 앞당겨도 1 할을 감한단 말이요. 이건 박 의장께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내리신 특별 분부요.

상인~ 자 그럼 령수증을 주시오

세무리~가만있자, 성함이 뉘시더라?

상인~ 동대문 밖에서 고무신 땜하는 라 인돌이 올시다.

세무리~라 인돌이라…응 4월분 세금이 모두 11만 5천 환이로군

상인~ 아니 이 고지서에는 10만 환이라고 적혔는데요?

세무리~뭐?!

청장~ 으—ㅇ, 그건 이번 우리 사세청 명령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지 마시오. 1 할을 감하면 마찬가지가 아니요 헤헤 여보게 처음으로 모범을 보인 분이니 우수리는 떼고 10만 환만 받지…

세무리~네… 자, 라 인돌씨 10만 환

상인~ 저 그런데 4월분은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7월, 8월…아니 금년 것을 모두 물죠

군중들~나도 금년 것을 모두 물겠소.

세무리~이 달치는 마련도 안 됐다면서 금년 치를 모두 물겠다구?!

청장~ 아무려면 어떤가 어서 받기나 해!

세무리~가만… 차차 세금이 올라 갈텐데 이러다가…에이 모르겠다. 그럼 7월 분 것부터 내시오 10만 환!

상인~ 10만 환이라뇨? 아니 그럼 박 의장이나 청장은 거짓말을 했나요?

청장~ 거짓말을 하다니? 이건 정말이야! 1 할을 감하니까 10만 환 아닌가

상인~ 계산이 틀리는데요 하루에 일부씩 석달 열흘, 백 날이면 10 할 아니요, 자 령수증을 주시오!

세무리~뭐?

청장~ 뭐라구?

상인~ 10 할이면 전액을 감하는게 아니요?

군중들~8월, 9월… 그 후의 것은 모두 우리가 거스름을 받아야 겠소. 자 령수증을 내시오.

청장~ 이런 날도적 놈들이라구…

군중들~뭐 우리가 날도적 놈들이라구?! 그래 하나 해 주는 건 없이 모두 빼앗아가구 굶어 죽게 하는 놈은 누군데 우리가 날도적놈이야? 이 천하에 박살을 할 놈아 네 놈들이 날강도야!… 자 어서 박 정휜지 백정휜지 말대루 령수증을 내라 이놈들!

청장~ 아이쿠… 망했구나…사람 살려라. (꽁무니를 뺀다.)

세무리~청장님 이게 어떻게 된 셈입니까? 청장님!

바빠난 호전광들

남조선에 부식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지반은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다. 그들은 이 심각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새 전쟁 준비의 모험의 길에 더욱 더 들어서고 있으며 미친 승냥이들을 거듭 남조선에 파견하고 있다.

조 명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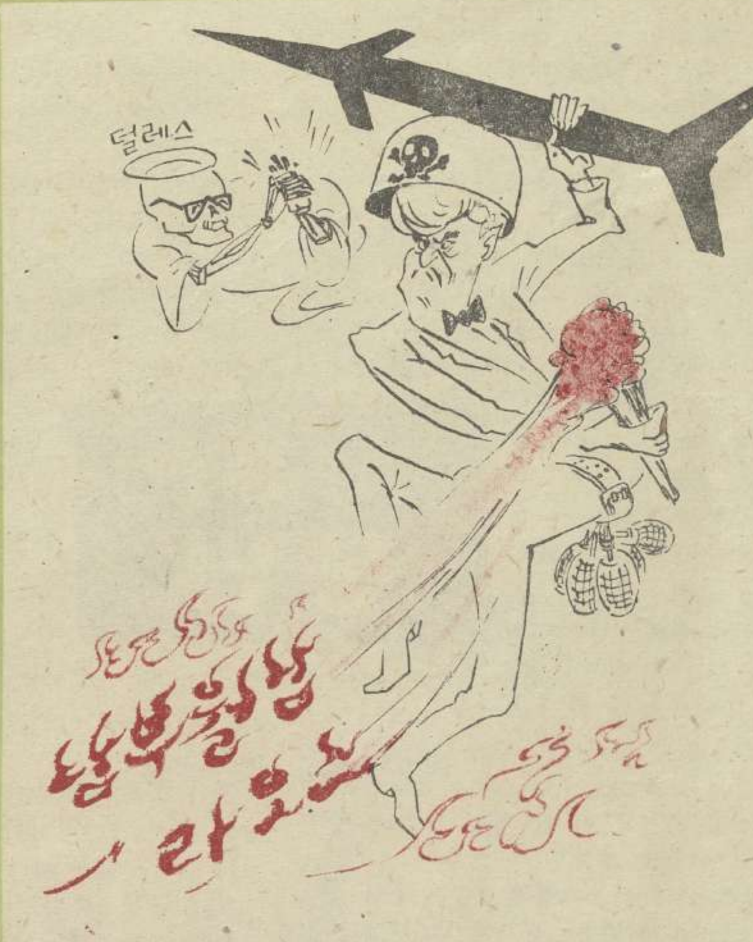
케네디의 폭탄 아가리

—나는 오직 《평화》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백 인균 그림

전쟁 광신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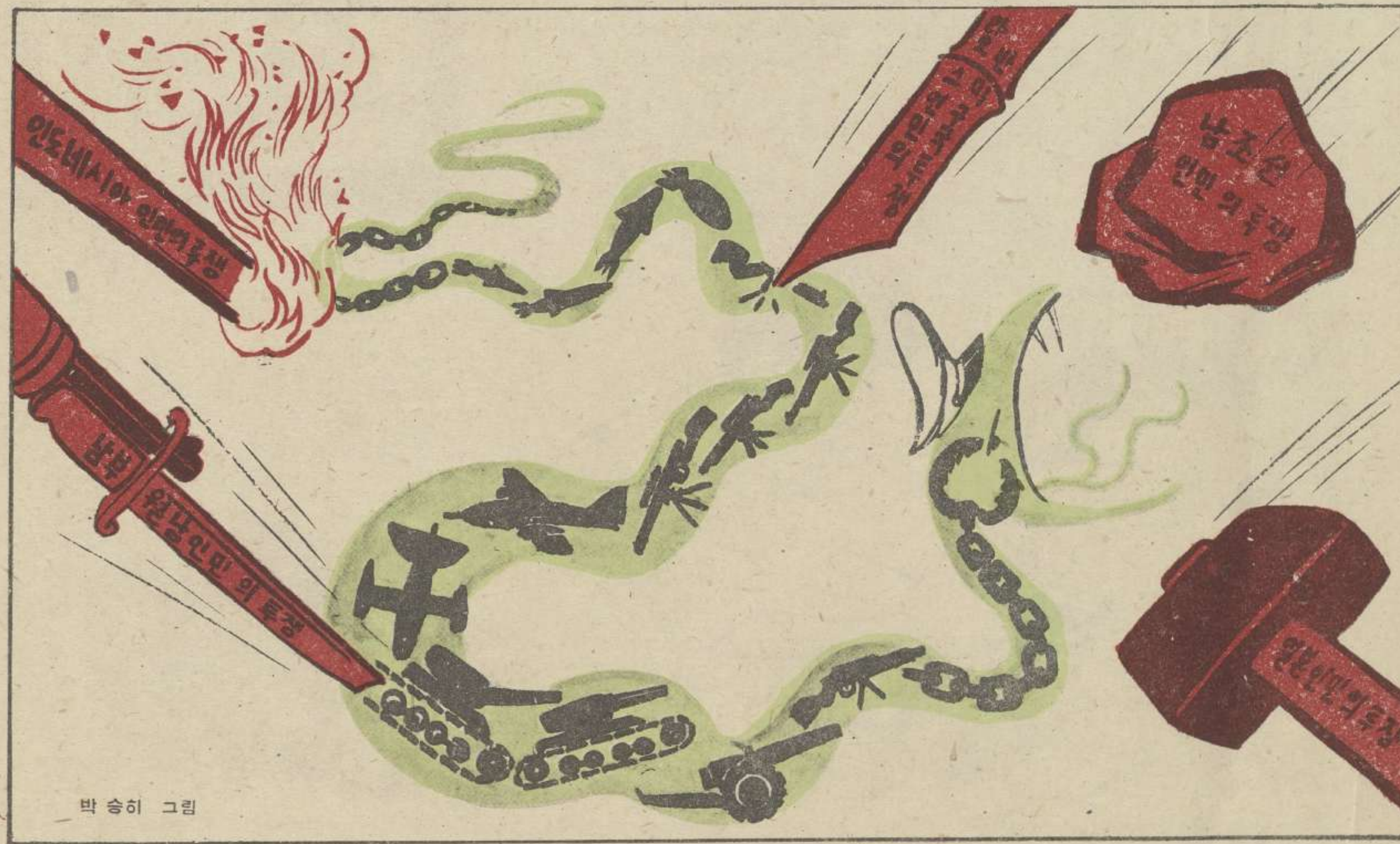
미제는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며 나아가서 《세계 제패》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국부 전쟁》과 《전면 전쟁》 마당으로 전변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덜레스—잘한다 잘해!!

조 명식 그림

토막을 내야 한다



박 승히 그림

깡패 대장의 봉변

지난해 홍수로 전답을 류실당한 영주 지구 농민들은 말로만 수해를 《복구》해 주겠다고 세월 없이 질질 끌고 있는 《군사 정권》의 헛나발을 더는 바랄 수가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자체로 물'도랑이라도 내 볼려고 사방 공사를 착수하게 되였다.

이 기미를 눈치 챈 깡패 두목들은 쑥떡공론을 하였다.

—듣자니 래일 영주에서 농민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한다네 (송 요찬)

—그래 무슨 좋은 수라도 있나?

(박 정희)

—여보게, 농민들의 원성이 높고 우리는 돈이 없어 아무 것도 못하는 처지가 아닌가 그러니 이 기회가 좋단 말일세, 래일 현장에 내려 가서 큼직한 다이나마트나 한 개 터뜨려 놓고 5 개년 계획을 한다고 시위를 하면 어떤가 말일세! 흐흐 (송 요찬)

—됐어 됐단 말이야… 인젠 체면이 서게 됐어… 군사 정권이 영주에서 대대적인 복구 공사를 한다고 한 번 판을 크게 벌려 놓잔 말이야! (박 정희)

이렇게 하여 급작스럽게 《영주 수해 복구 공사 기공식》이라는 연극이 벌려지게 되였다.

식장인 영주 공설 운동장에는 린근에서 강제로 끌려 온 주민들을 채워놓고 《미국 대사》니 《유엔군 사령관》이니 하는 갈색 빛갈의 승냥이들과 《내외 귀빈》들도 《초대》하였다. 깡패들은 어용 출판물들을 동원하여 이 날은 영주 지구 《최대의 잔치 날》이라고까지 떠들게 하였다.

모든 준비는 다 되여 있었다.

이제 다이나마이트 끈만 당기면 남원천 하류 통수로에 막힌 토사가 무너지고 공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성대히》 끝나게 된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가? 박 정희가 다이나마이트 끈을 당기는 순간… 옆에서 박수치던 《재무부 장관》은 《복부》에 《돌총》을 맞아 쓰러졌고 폭음과 함께 주위는 온통 돌과 흙덩이로 수라장이 되였으니…

《공사》가 무언지 《폭약》이 무언지 쥐뿔도 모르는 깡패들은 허장 성세에 급급한 나머지 《폭약》을 지나치게 많이 재웠던 것이다.

불의에 《돌과 토사의 세례》를 받고 혼비 백산한 송 요찬은 머리를 땅에 쳐 박은 채 전신에 흙매질을 하고는 정신없이 서 있는 박 정희에게 엎드리라고 고함을 쳤다.

돌이 날아 오는 통에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간이 콩알이 되여 땅에 엎드렸던 《귀빈》들도 뒤 돌아 볼 새 없이 도망쳤다.

남의 불에 게 잡는다는 격으로 농민들의 공사를 가로 채여 낯을 내려던 박 정희의 《잔치》는 웃지 못할 광경으로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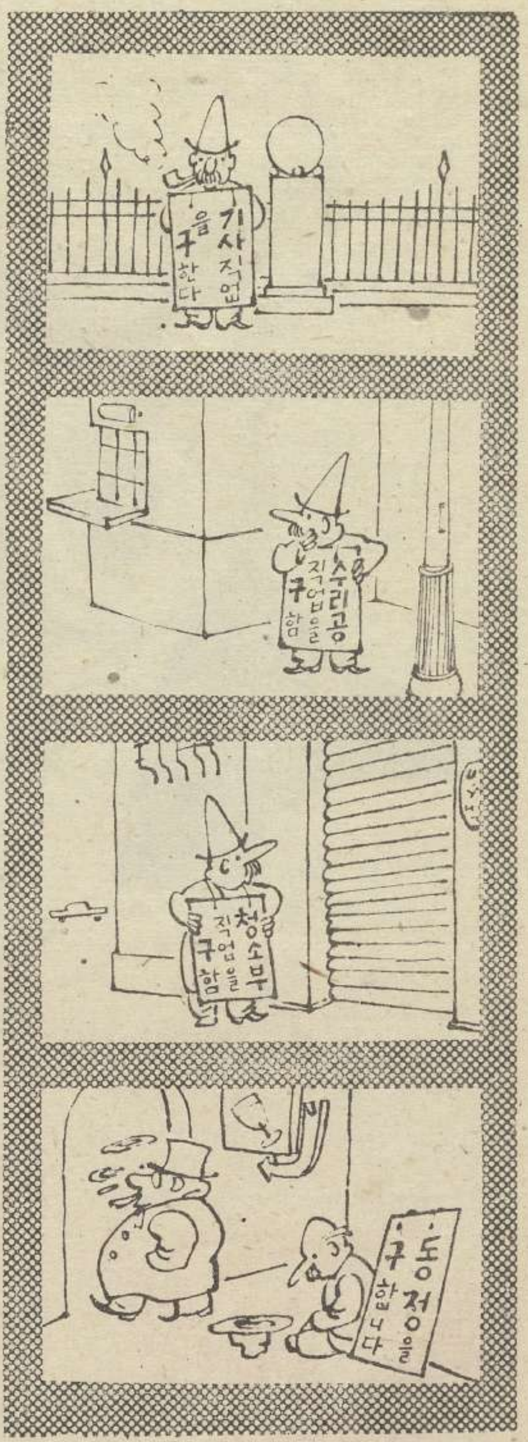
이날 깡패 두목 박 정희는 그가 목숨을 부지한 데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을른지 몰라도 목숨이 붙었다고 《다행》으로 생각하지 말라,

분노한 인민들은 박 정희에게 진짜 봉변을 줄 때도 머지 않았다.

리 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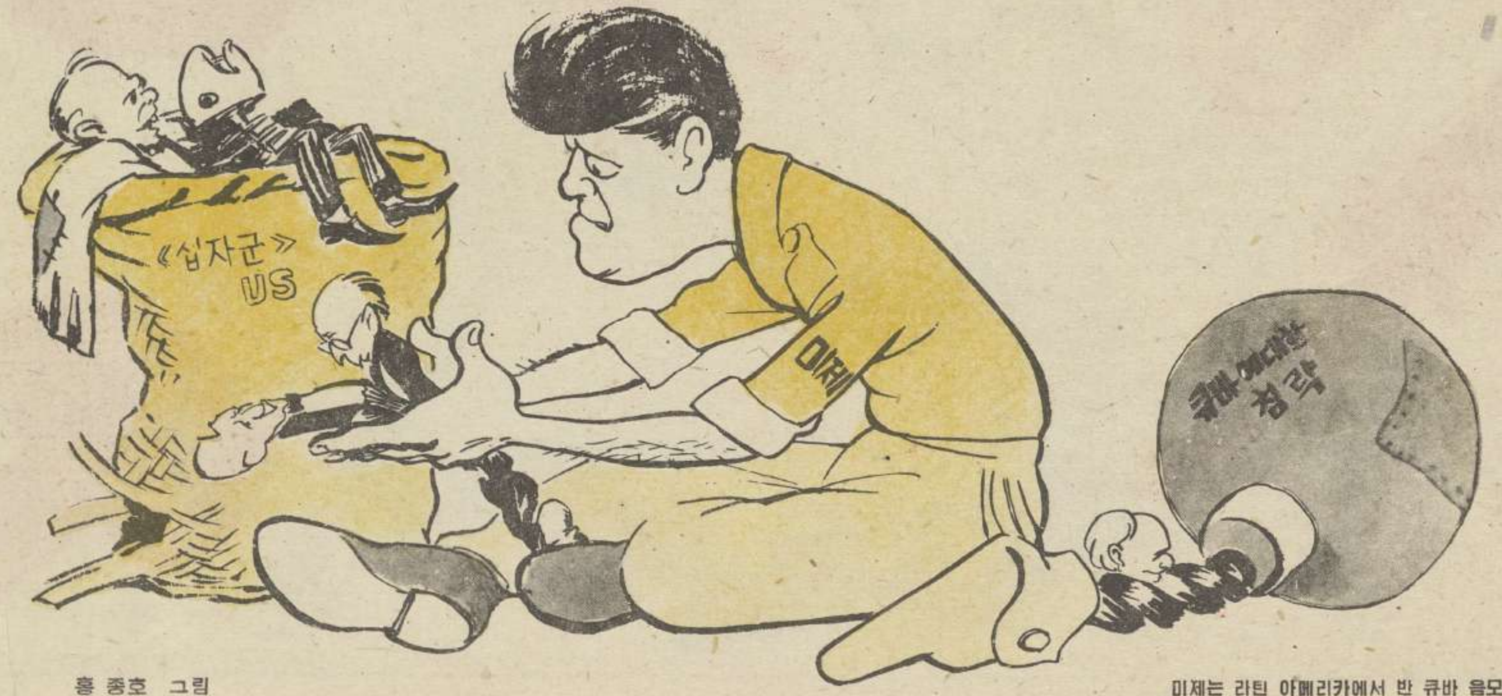
구직난

(미국에서)



최 영근 그림

괴뢰를 리용하여 심지를 끈다



홍 종호 그림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 큐바 음모에 더 많은 주구들을 인입하여 이른바 반 큐바 《십자군》을 형성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케네디식 《법치》

로 철

케네디와 그 일당은 빈번히 《법치 세계를 건설한다》 라고 떠벌리고 있다. 반동적인 미국식 《법》에 의하여 세계를 다스리자는 배'심이다.

그게 어떤 《법》이며 그 《법치》의 표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에이에프피 통신은 다음과 같은 《생동한》 실례 몇 가지를 전하고 있다.

☆ 누가 철면피한지

—당신이 흑인 켈렌이요? 당신 아들 카로이스, 당년 6 세는 체포되였소.

—체포요? 그 애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동차'길 우에서 눈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놀고 있었기 때문이요.

—저런! 그러니까 《교통 질서 위반 죄》로 체포된거구만요?

—아니! 《흑인 격리법》으로…

—《흑인 격리법》이라구요? 아니 그 법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흑인이 백인과 함께 놀면 체포된다고 그 《법》에 씌여 있는 걸 아직 모르오? 그런데 당신 아들은 《뻔뻔스럽게도》 바로 백인—눈'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희롱까지 하고 있었단 말요. 그것도 백주에 공공연하게…

☆ 일본 재판소에서

—에, 지금부터 본 재판의 판결문을 랑독하겠습니다. 일본 《주재》 미 제 12 기갑 사단 소속 상등병 화이드. 더블류. 하버드씨는 《공무 집행》중 《약간》 음주하여 3월 12일 밤 11 시 32 분 일본 공민 다나까의 가택을 《친선 방문》하였는바 《필요》에 의하여 소지했던 무기를 꺼내 „점검"하는 찰나에 다나까가 뜻밖에 큰 소리로 《양키가…》

—에헴!

—헤헤 미스터 하버드,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나까가 한 말입니다. 네. 《양키가 우리 처를 겁탈한다!》라고 „허위적"으로 고함치는 바람에 „무의식적"으로 발포하여 그의 처 히레꼬를 즉사시켰음으로 일본 형법에 의하여 살인죄로 인정하고

—에헴!!

—헤헤… 살인죄로 인정하고 벌금 315 딸라의 „엄벌"에 처함. 헤헤, 그러면 미스터 하버드, 분주하신데 돌아 가 보시지요.

—오케! 구드바이!

—에, 계속한다. 다나까는 신성한 미국 병사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 시켰음으로 즉각 미군 당국에 넘기여 미 군사법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상.

털어 버려야 한다

조 명식 그림

일본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 이께다 반동 계층의 침략 정책과 일본의 군국화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나토 사령부의 열병식

펜타곤 장군—《유감이야 히틀러 파시스트 장군놈중에서 많은 놈들이 살아 남지 못했으니…·
살아 남은 저놈들이라도 써 먹을 수야 있겠지》

꾸끄리늬씨 그림

편집 위원회 | 발행 군중 문화 출판사 | 인쇄 동평양 인쇄 공장 | ㄱ—210491 | 발행 1962. 5. 20 | (값 40 전)

단결된 위력 앞에서

송 시엽 그림

8280
ХВАЛЬСАЛЬ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9 1-12 8280